

용서에 대한 성서적 의미 탐구와 기독교사회윤리적 해석*

성신형 (주저자, 숭실대학교 베어드교양대학 조교수)
김선욱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구약성서의 전통에 드러난 용서

1. 구약성서의 죄 개념과 용서
2. 정의의 수호, 그리고 회개와 용서

III. 신약성서의 전통에 드러난 용서

1. 복음서에 드러난 용서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
2. 사도 바울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교회)의 용서

IV. 용서와 기독교사회윤리

1. 어려운 용서 - 용서의 종말론적 지평
2. 사랑과 정의의 실천으로서의 용서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0.46.04>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 연구비를 받아서 진행된 것임을 밝힌다.

• ABSTRACT •

A Study of the Biblical Meaning and the Christian Social Ethical
Interpretation of Forgiveness

Assistant Prof. Seong, ShinHyung (Main Author, Soongsil Univeristy)
Prof. Kim, Seon-wook (Corresponding Author,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ristian ethical meaning of forgiveness. This study delves into the Christian ethical implications of forgiveness, while grasping the meaning of sin and forgiveness revealed in the Old and New testaments. To this end, the study develops three points.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meaning of forgiveness in Old Testament tradition as it deals with the social meaning of forgiveness based on the law(*Torah*) and the prophetic tradition. Second, this study discusses how the social meaning of forgiveness was conveyed through the gospel in the days of Jesus, and through the early church of the Apostle Paul in the New Testament tradition. Third, this study conducts a Christian ethical interpretation of forgiveness, as it examines the dialectical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of Paul Ricoeur, that the ethics of forgiveness are the process of realizing love and justice. Through this study, forgiveness does not simply mean pursuing on the religious dimension for the next world, but pursuing on the Christian ethical dimension through the practice love and justice.

Key words: Forgiveness, Justice, *Torah*, the Sermon on the Mount, Paul Ricoeur, Christian Social Ethics

I. 들어가는 말

임마누엘 레비나스는 “용서는 잘못에 대한 도덕적인 현상과 직접 연결된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응답”이라고 하였다.¹⁾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용서는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잘못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반응 과정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용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전제가 되어서 일어나는 행위로 대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전제로 용서가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는 조건적인 용서로 가해자가 사죄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경우이다. 두 번째는 가해자는 사죄하지만 피해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로 살인과 같은 극심한 악의 경우 피해자가 이미 없거나 혹은 피해자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경우이다. 세 번째는 가해자가 사죄하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용서하는 경우로 무조건적인 은혜와 배움이다. 네 번째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 사죄나 용서를 하지 않는 경우로 양자 간에는 늘 갈등과 대립이 이어진다.²⁾ 한편 용서의 종류에는 자기용서, 관계적인 용서, 정치적인 용서, 종교적인 용서 등이 있다. 이러한 종류의 용서들은 앞서 살펴본 용서의 네 가지 경우와 연결되어서 일어나곤 한다.³⁾ 이에 따라서 용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개인이 당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인류가 경험한 엄청난 악의 문제들에

1) Emmanuel Levinas, *Totalité et infini*, trans., Alphonso Lingis, *Totality and Infinit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1) 282.

2) Anthony Bash, *Forgiveness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3-18.

3)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 - 용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서울: 동녘, 2017), 3장과 4장을 보라.

대한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있으며, 세 번째는 용서의 문화적·철학적 연구이고, 네 번째는 종교 특히 기독교에서 용서의 성서적·신학적·윤리적 해석 등이다.⁴⁾

이와 같이 용서는 여러 방향에서 이해해야만 하고, 또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야만하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여러 지평에서의 이해가 요구된다. 개인의 삶에서 용서는 온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토대를 형성하며, 이런 과정에서 종교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의미의 용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이상을 위해 반목과 대립 및 투쟁의 과정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정치적인 차원의 용서와 화해가 요구되기도 한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혐오 현상과 불관용, 즉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타자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들을 낙인찍어서 이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는 현상 속에서 사회·정치적인 용서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 기독교인들의 용서에 대한 이해이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내세지향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용서를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을 종교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삶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인류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전통은 그 처음 시작부터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쳐왔다. 인류가 가지게 된 실존적인 한계(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

4) 필자는 한국학술정보사이트(riss.kr)를 통해서 용서(forgiveness)를 주제로 논문을 검색해보았다. 대략 850편(국내) + 2300편(해외) 가량의 논문이 소개되고 있다. 물론 여기 소개된 논문들을 다 들여 보는 것은 불가능하였지만, 이 논문들 중에 50편 정도 샘플로 정해서 대략적인 키워드별로 분석해본 결과 위의 네 가지 카테고리 분류할 수 있었다.

독교 신구약성서의 전통에서 ‘용서’의 사회윤리적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성서는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정신인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고 있다. 구약성서 율법의 약자보호법, 신약성서의 예수의 산상수훈 등은 이러한 가르침의 정수이다. 본 연구는 성서의 전통에서 드러난 용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드러난 용서의 사회윤리적 의미를 파악하면서 용서가 주는 공동체적 회복의 가치를 탐구하고 용서의 기독교 윤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세 가지 논점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본 논문은 구약성서 전통에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죄의 의미를 파악하고, 율법을 제정하신 뜻에 대해서 설명하고 율법 전통이 예언자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핌으로 용서의 사회윤리적 의미를 다룰 것이다. 둘째, 신약성서의 전통에서 용서의 사회윤리적 의미를 살필 것이다. 예수 시대의 복음과 용서의 관계, 그리고 초기 교회 바울을 통해서 용서의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증할 것이다. 이러한 성서적인 전통에서의 용서의 의미를 살펴봄으로, 성서적인 의미의 용서는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통한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셋째, 리콰르의 용서 개념을 중심으로 용서의 기독교사회윤리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리콰르는 용서의 윤리는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는 리콰르의 주장에 근거하여, 용서의 윤리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기독교사회윤리적 의의가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용서는 단순히 내세적이고 종교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의 용서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논증할 것이다.

II. 구약성서의 전통에 드러난 용서

과연 구약성서에서는 용서의 전통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구약성서의 창조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세계는 서로 밀접한 관계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런 관계는 악(혹은 죄)이 시작됨으로 깨어지게 되었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서 언약의 율법을 체결한다. 이와 같이 구약성서의 용서의 전통은 죄에 대한 이해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구약성서의 용서의 전통을 죄에 대한 이해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율법과 예언자의 전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구약성서의 죄 개념과 용서

구약성서 전통에 드러나는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행동에 대해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구약성서의 죄 개념이다. 구약성서의 죄 개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죄는 율법(토라)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죄 개념은 율법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 초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약성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⁵⁾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 땅 중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해방시켜준 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내 말 곧 내 법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즉 율법은 계약 관계로

5) 박해령, “구약성서의 죄개념과 사유(赦宥)의 하나님”, 『신학논단』, 57(2009), 10-11.

만들어진 것이었다.⁶⁾ 다시 말해서 구약성서의 죄란 인간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벗어난 것을 의미했다. 즉 구약성서의 죄 인식은 인격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구약성서의 전통이 유대교화되면서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의 죄 인식을 벗어나서 율법을 지키는 여부를 죄의 기준으로 삼았다. 유대교 전통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의로운 것으로 율법을 잘 지키므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대교적인 죄 이해는 구약성서의 죄 이해와는 그 차이가 매우 크다.⁷⁾

구약성서의 전통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희생제사이고, 다른 하나는 예언자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라는 이분법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이웃이라는 나와 타자와의 관계로 확장된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건강한 관계는 이스라엘과 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서 구약성서의 죄의 용서의 전통은 형벌의 면제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신다.⁸⁾ 이런 관점에서 제사법이나 예언자들의 예언도 고찰해 보아야 한다.

구약성서의 전통에서 죄를 용서받는 첫 번째 방법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레위기에 죄와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

6)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이 율법(십계명을 비롯한 법들)을 받는 내러티브에서 잘 기록되어 있다.

7) 박해령, “구약성서의 죄개념과 사유(赦宥)의 하나님”, 11. 이 논문에서 박해령은 신약성서 전통에서 예수나 바울의 죄와 용서에 대한 이해도 유대교적인 전통을 벗어나서 구약성서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설명한다.

8) 위의 글, 20.

다. 그 중에서 4~7장까지가 죄에 대해서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등)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수나 부지중에 범한 경우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속건제는 여호와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한 경우나 타인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착취한 경우 드리는 제물이다. 속건제를 드릴 때, 특이한 사항은 반드시 성물이나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한 변상을 한 후에 속건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은 부지중에 계명을 범한 속죄제의 경우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있다. 죄의 형벌이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임을 볼 때에 죄와 용서는 공동체(사회적)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⁹⁾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속죄(속건)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들)를 용서하시고, 이 제사를 통하여 깨어진 관계는 다시 회복되었다.¹⁰⁾

구약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죄 용서의 또 다른 방법은 예언자적인 전통을 따라서 죄를 고백(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왕조가 설립된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분열되어 국가가 쇠락하는 과정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떠났으며, 그래서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고, 이런 고통을 이기려면 이제 다시 돌이키라고 예언하였다. 다시 말하면, 심각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예언의 내용이고, 그 핵심이 바로 ‘회개’이다.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은 마치 ‘율법을 지키면 죄가 없다’는 것처럼 회개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즉, 회개가

9) 이와 같이 고의로 죄를 범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법은 민수기 15장 30~31절에 기록되어 있다.

10) 박해령, “구약성서의 죄개념과 사유(赦宥)의 하나님”, 16-17.

죄사함의 보증은 아니다. 그보다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 즉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인격적인 사역을 의미한다.¹¹⁾ 또한 제사와 회개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용서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레위기 제사의 전통에서도 분명히 회개의 중요성이 드러나 있다. 예언자들은 이러한 전통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다.¹²⁾ 이와 같이 구약성서의 용서의 의미는 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는데, 죄란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란 파괴된 관계의 회복이다.

2. 정의의 수호, 그리고 회개와 용서

이상에서 구약성서의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죄와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관계의 파괴로서의 죄를 이해한다면, 관계의 회복으로서의 용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구약성서의 전통에서 관계의 회복과 용서는 단순히 제의적인 차원에서 신에게 잘 보여서 얻을 수 있는 죄의 면제를 얻는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기초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런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약자보호법이다. 제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토대였다. 이러한 토대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구약성서는 당시 고대근동 지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약자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구약성

11) 위의 글, 18.

12) 송경아, “구속사를 통한 성경적인 용서의 발전과 그 용서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복음과 실천신학』, 51(2019), 143-144.

서만이 가지고 있는 관계 회복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준다.

구약성서의 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분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너희(이스라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출 20:2; 신 5:6).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언약의 법을 체결하면서, 그 출발점을 약자에 대한 관심, 사회적 정의에 대해 관심을 두었다. 당시 고대 근동지역의 법은 약자, 특히 노예에 대한 법률은 법의 중심에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을 서술한 후에 바로 노예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다(출 21:1-11).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구약성서의 법이 약자를 향해있음을 잘 보여준다.¹³⁾ 약자를 위한 법률 규정은 가장 초기의 법인 출애굽기 21-23장에 잘 다루고 있다. 이집트에서 나그네 되고 노예였던 이스라엘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보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이다.¹⁴⁾ 이와 같이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그들을 위한 행동이 율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를 보여준다.

구약성서의 율법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는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노예 등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구약성서의 율법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이 300회 정도가 나올 정도로 율법이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¹⁵⁾ 이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시다(출 23:6-9; 신 10:17-19).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가운데, 구약성서의 전통에서는 나그네에 대한 대우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이들은 외국인 이민자

13) 이사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269.

14) 크리스토퍼 라이트, 김재영 옮김,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IVP, 2006), 465.

15) 이사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262.

로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오늘날의 이민자나 난민 등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약자는 고아와 과부이다. 이들이 함께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남편이 죽게 되면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구약성서에서 또 다른 사회적인 약자로 레위인도 언급되고 있다. 성전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제사장 그룹이었던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형제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¹⁶⁾

구약성서의 율법 전통에서 설명하고 있는 약자 중에서 생각해보아야 하는 또 다른 그룹은 노예이다. 구약성서의 노예는 당시 고대 근동지역의 자유민들이 자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수단과는 달리 고용된 일꾼을 의미한다. 이들은 많은 경우에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종살이를 하게 된 사람들이다.¹⁷⁾ 이들은 당시 다른 나라의 노예들이 누릴 수 없었던 법적인 안전을 누리면서 살았다. 이들은 주인의 소유물이 아니었기에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정해진 기한이 되면(안식년 혹은 회년),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이들에게는 종교생활도 보장되어서 안식일을 누릴 수 있었고, 유월절 등과 같은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¹⁸⁾ 주인은 이들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신체에 상해를 입은 종은 보호받아야 했으며, 주인이 상해를 입힌 것이 증명되면 종은 해방되었다. 이는 단순히 주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서, 노예도 한 인격으로 대해야 함을 의미한다.¹⁹⁾ 더욱 흥미로운 것은 노예를 위한 도피처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신 23:15-16). 이것은 도주한 종은 처벌 받는 대신 그들이 선택한 곳에서 살게 해주는 제도이다. 당시

16) 위의 글, 263-266.

17) 위의 글, 269. 그리고 라이트,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464.

18) 라이트,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465-466.

19) 같은 책, 466-467.

고대 근동지역의 법은 도주한 노예뿐 아니라, 숨겨준 사람까지도 형벌을 주었는데, 구약성서의 법은 그와는 정반대였다. 도주한 종에게 자유뿐 아니라 보호받을 권리까지 제공해 준 것이다.²⁰⁾ 이와 같이 구약성서의 율법 전통에서 관계의 회복, 즉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안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은 예언자들의 활동에서도 이어진다. 예언자들은 완전히 깨져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목격한다. 율법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땅을 선물로 받은 자유민이었던 이스라엘은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지 않고 압제와 착취로 자신들의 배를 불러가면서 살았다. 특히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선물로 받은 가나안 땅에서 율법 정신의 핵심인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실현하기는커녕, 타인을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살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의'를 예언하였다. 예언자들이 외친 회복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이다.²¹⁾ 이것은 정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회개)는 외침이다. 이것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편애와 상처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으로 가득한 정의이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다. 이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해체될 것이다.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외침이었다.²²⁾ 이와 같이 정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함으로 화해와 용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

20) 같은 책, 468. 도피처 제도는 구약성서에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와는 다른 것이다.

21) 김회권, "예언자들의 회복적 정의와 사회적 치유 사상에 나타난 용서와 화해", 전우택 외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서울: 명인문화사, 2018), 122-127.

22) 위의 글, 128-129.

안타깝게도 예언자들의 외침은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스라엘에는 정의와 용서가 사라졌고, 마침내 망하게 되고 말았다.

이상에서 구약성서의 전통에 나타난 용서의 의미를 생각해보았다.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용서의 기초이다. 그 관계의 회복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신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에 있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면서 정의를 실현해감으로 세워져 간다. 궁극적으로 용서를 통한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에서 자유민으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의 기본 정신, 즉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올바르게 세워지지 못하고,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용서의 정신을 가르쳤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전통을 따르지 못하고 망하게 되었다.

III. 신약성서의 전통에 드러난 용서

신약성서에서 용서의 기초는 예언자적인 전통의 회개를 이어감으로 시작한다. 신약성서의 용서의 중심 역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다. 그런데 신약성서는 한 걸음 더 나간다. 신약성서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의 회개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을 통한 용서와 회복을 주장한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의 핵심이었으며, 직접 용서를 경험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작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위한 가르침이었다. 본 장에서는 신약성서에서 드러나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고 바울의 용서의 전통을 살펴보면서 신약성서에서 용서를 통한 사랑과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정의의 전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논증하고자 한다.

1. 복음서에 드러난 용서의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

신약성서의 용서의 출발점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이다.²³⁾ 복음서의 시작이 요한의 회개의 세례로 출발하는 것은 복음서 전체의 메시지의 중심이 ‘용서’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다.²⁴⁾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큰 울림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자들의 전통을 잘 이어받은 가르침이었다. 이미 깊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사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민중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소수의 유대종교인들만 자신들은 죄인이 아님을 자랑하고 있었던 시기에,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을 향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반대로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대표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에게 온 것을 보고는 욕하면서 꾸짖었다.²⁵⁾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더이상 유대인들의 전통의 예식을 의미하지 않았다. 당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하기 위한 예식으로 사용되었다. 요한은 이 예식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회개의 예식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요한은 그 전통을 바꿔버린 것이다.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제사장에게로 가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된 것이다. 속죄의 제사(종교적 예식)가 아닌 회개의 세례를 통한 용서와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²⁶⁾ 세례 요한은 회개와 함

23) Anthony Bash, *Forgiveness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80-81.

24)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복음서는 서론(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심)적인 설명 이후에 바로 요한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다. 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25) 마태복음 3:5-7.

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종교적인 예식을 중심으로 용서를 가르쳤던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이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예수는 회개와 용서를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하였다. 예수는 회개와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임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 예수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마4:17; 막1:15). 예수의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뒤이은 것이다.²⁶⁾ 예수의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관련되어 있다. 예수의 회개는 율법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율법에 기초해서 자신들만을 위한 의의 세계를 만들어두고 거기에만 의의가 있다고 하는 전통을 거부한다. 예수는 성전에 예물을 드림으로 얻는 용서가 아닌 회개의 의를 가르쳤다. 회개와 용서는 율법을 준수해야만 돌아오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회개는 유대 민중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부여해준다. 그러나 예수는 율법을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는 율법의 본래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회개의 용서를 강조하였다.²⁸⁾ 앞서 언급했듯이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이다. 예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마 5:17).

복음서에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개와 용서에 대한 사역이 잘 묘사되어 있다. 예수는 직접 죄를 용서하기도 하였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26) Bash, *Forgiveness and Christian Ethics*, 81-82.

27) 성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의 사역을 준비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마 3:11; 막1:7-8; 눅3:16-17; 요1:26-27).

28) Bash, *Forgiveness and Christian Ethics*, 87-89.

자신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복음서에서 예수가 직접 죄를 용서한 사건은 두 번 기록되어 있다. 한 번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마9:1-8; 막2:1-12; 눅5:17-26)이고, 다른 한 번은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한 사건이다(눅7:36-50). 두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서 죄인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병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또한 누가복음 7장의 죄 많은 여성은 당시 세리와 함께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겨지던 사람이다. 이들에게 예수는 죄사함(용서)을 선포하였다. 특히 죄인으로 낙인찍힌 한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사랑과 감사를 포함으로 용서를 받은 사건은 용서가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 즉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²⁹⁾ 예수는 산상수훈(특히 주의 기도),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의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야기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등을 통해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다. 주의 기도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깊게 조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예수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타인을 용서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일임을 가르쳤다.³⁰⁾ 또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서는 회개와 용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큰 기쁜 일인지에 대해서 역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와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³¹⁾

예수는 회개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유대 종교지도

29) 김영남, “신약성경에 나타난 ‘회개(참회)와 용서’”,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55 (2006), 67-68. 당시의 또 다른 죄인인 세리 삭개오를 만나서 그의 집에 찾아가고 그에게 회개의 고백을 이끌어 낸 것도 간접적인 의미에서 예수가 죄를 용서한 사건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눅19:1-10).

30) Bash, *Forgiveness and Christian Ethics*, 95-97.

31) 김영남, “신약성경에 나타난 ‘회개(참회)와 용서’”, 68-72.

자들과 끊임없이 싸웠다. 가장 대표적인 싸움은 안식일 논쟁이었다. 안식일에 밭 이삭을 자른 사건(마12:1-8; 막2:23-28; 눅6:1-5),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마12:9-21; 막3:1-6; 눅6:6-11),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자를 고친 사건(눅13:10-17) 등을 통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장 등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예수는 크게 논쟁하였다. 예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선자라고 욕하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화가 내릴 것이라고 저주했다(마23:1-36; 막12:38-40; 눅11:37-52; 눅20:45-47).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에 화를 내면서 심하게 싸웠다(마21:12-17; 막11:15-19; 눅19:45-48; 요2:13-22). 유대 종교지도자들에게 이런 예수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로마의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회개와 용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³²⁾ 이 십자가형의 현장에서 가장 깊은 그러나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용서의 사건이 만들어진다. 그것은 예수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었다. 예수는 자신이 희생자이면서도 가해자들을 향한 복수를 계획하거나 원망을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 가장 어려운 용서의 단계를 완성하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용서를 실천하는 기초이다.³³⁾ 복수가 아닌 무조건적인 용서로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기독교적인 삶을 실천하는 길이다.³⁴⁾

32) 알렌 버히, 김경진 옮김 『신약 성경 윤리』, (서울: 솔로몬, 2015), 84.

33) Anthony Bash, "Forgiveness: A Re-appraisal",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4(2) (2011), 137-138. 그리고 Bash, *Forgiveness and Christian Ethics*, 92-93.

34) 이종원, "용서의 윤리 - 호모 울토르(Homo Ultor)에서 호모 이그노센스(Homo Ignocense)로", 『신학과 사회』, 28(2) (2014), 25-26.

2. 사도 바울과 초기 기독교 공동체(교회)의 용서

예수가 세상을 떠난 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를 세웠다. 처음 이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다. 그러나 점차로 교회의 힘이 커지자 유대교 종교지도자들은 교회를 박해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교회는 그 힘을 잃게 되었지만, 사마리아, 페니키아, 시프리아, 시리아 등으로 흩어졌던 예수와 유대인들은 다시 안티오키아(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만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바울)은 예수와 유대인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그 곳으로 가던 도중 다마스쿠스(다메섹)에서 회심의 사건을 경험했다. 이 사건은 바울이 예수의 용서를 경험한 사건이었다(행9:1-19). 다마스쿠스 도상의 경험에서 회개와 용서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바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 즉 꺾박자였던 자신을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용서와 회심의 사건이었다.³⁵⁾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용서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의 은혜의 경험을 용서의 사건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살전1:9-10; 빌3:3-14). 데살로니가서에는 비유대인(이방인)의 회심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회개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성서적인 전통을 잘 이어가면서, 회개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라고 이해하고 있다.³⁶⁾

용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용서와 관련하여 바울이 사용한 용어는 칭의(justification)이다. 칭의는 법률용어로 직접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

35) 김영남, “신약성경에 나타난 ‘회개(참회)와 용서’”, 75.

36) 위의 글, 73-77. ‘이방인’이라는 용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 민족만을 강조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배제하는 용어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용어 대신 ‘비유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나라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 바울은 칭의라는 용서를 사용해서 그의 신학의 중심 사상인 기독교론을 주장하였다.³⁷⁾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울 신학의 중심 주제는 기독교론이지 칭의론이 아니라는 점이다. 바울 복음의 핵심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변증이다. 이러한 변증의 과정에서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칭의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바울이 이 교리를 발전시킨 이유는 단순히 교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논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바울은 당시 로마와 갈라디아 지역의 종교 사회적인 배경과 연결해서 칭의의 교리를 발전시켰다.³⁸⁾ 칭의의 교리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어서 생긴 것이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칭의의 교리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믿음’을 강조하다보니, 정의로운 삶의 과정은 무시되고 믿음이 너무 값싼 은혜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칭의의 교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길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칭의의 교리를 주장하였다.³⁹⁾

37) Bash, *Forgiveness and Christian Ethics*, 97-99.

38) 성신형, “칭의에서 정의로: 이신칭의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장신논단』, 50(1) (2018), 227.

39) 위의 글, 239.

본 글에서 저자는 바울과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를 정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오늘날 교회가 의롭게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정의’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부분을 비판하면서, 바울과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가 강조되게 된 배경을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바울은 본문에서 설명을 하였고, 루터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후 농민들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자유’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믿음’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저자는 칭의의 교리의 중심이 ‘믿음’에서 ‘정의’로 옮겨져야만 비로소 이신칭의 교리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주장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계속하던 중에 갈라디아교회와 로마교회의 상황을 듣게 되었다. 갈라디아 교회는 비유대인이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배제와 다툼의 상황을 들은 바울은 이들에게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을 역설하였다(특히 갈라디아서 5장과 6장).⁴⁰⁾ 한편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다. 클라우디우스 황제(AD 41-54)가 49년경에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하게 되는데, 이후 비유대인들 중심으로 로마교회가 운영되어오다가 54년에 클라우디우스가 죽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로마교회에 유대인과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이에 바울은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유대교적인 전통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믿음으로 완성됨을 강조하면서(로마서 3장), 결국 교회는 서로 짐을 나눠지는 은혜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로마서 14장). 바울은 더이상 차별이나 다툼이 없이 서로 환대하고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임을 분명히 하였다.⁴¹⁾ 이와 같이 바울이 칭의를 강조했던 이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교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용서(칭의)의 교리는 교회의 전통 속에서 값싼 구원의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칭의는 정의의 다른 모양으로

40) 위의 글, 227-228.

41) 위의 글, 228-232.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는 과정임을 분명히 일깨우고 있다.⁴²⁾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역설한다.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전통에 의해서 뒤틀려진 유대인과 비유대인 간의 관계의 자유를 통한 새로운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를 역설한다.⁴³⁾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다. 복음은 윤리적 기능을 파괴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그것은 새로운 윤리적 삶을 살게 만든다.⁴⁴⁾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관계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더이상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순종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나,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서로 형제의 관계로 대하라는 부탁은 당시의 사회적인 관계에 비춰볼 때, 아주 특별한 변화를 의미한다.⁴⁵⁾ 물론 바울이 당시 로마사회의 남성중심성이나 노예제도를 완전히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 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기존의 관계로부터 자유를 선언했던 것은 틀림없다. 믿음으로 얻어진 의(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허락했고, 이것은 새로운 관계를 위한 사랑의 윤리적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상에서 신약성서에서 드러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신약성서의 용서의 전통은 구약성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틀을

42) 위의 글, 240.

43) 알렌 버히, 『신약 성경 윤리』, 228-229.

44) Richard, B.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유승원 옮김,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IVP, 2002), 75-76.

45) 한기채, 『성서이야기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290.

당시 오네시모는 18-19세기의 인종주의적인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신분이었다. 집안에 고용된 신분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했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바울이 이 둘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빌레몬서를 썼다.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예수가 전파한 회개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참여, 정의를 구현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초기 교회의 신학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 준다. 신약성서의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윤리적인 실천을 잘 보여주고 있다.

IV. 용서와 기독교사회윤리

이상에서 성서적인 전통에서 용서의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교리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윤리적 의미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 기독교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한다.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의 관계의 회복이 용서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성서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러한 성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용서의 의미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용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해석을 살펴보면, 주로 덕윤리와 연결해서 용서의 윤리적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공동체 윤리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이어받아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⁴⁶⁾

46) Bash의 책(*Forgiveness and Christian Ethics*)에 이런 관점이 매우 잘 소개되어 있다. 또한 Alan J. Torrance의 “Forgiveness and Christian Character: Reconciliation, Exemplarism and the Shape of Moral Theolog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30(3) (2017), 292-313)를 보라. 이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스텐리 하우워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용서의 공동체 윤리적 의미와 성경의 내러티브를 강조하면서 “용서를 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내러티브들에 의해 유지되는 공동체가 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내러티브들은 다름 아닌 용서하는 일을 그 본성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용서의 기독교윤리적 의미를 설명하였다(Stanley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그러나 본 논고에서는 덕윤리의 관점에서 용서의 기독교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 사랑과 정의의 관점에서 용서의 기독교윤리적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리콤프의 용서 개념을 그의 작품 『사랑과 정의』, 『기억, 역사, 망각』등을 바탕으로 살펴면서 용서의 기독교사회윤리적 의미에 대해서 논증할 것이다.

1. 어려운 용서 - 용서의 종말론적 지평

리콤프는 역사의 의미에 대한 그의 역작 『기억, 역사, 망각』의 에필로그에서 ‘어려운 용서’라는 제목으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⁴⁷⁾ 용서는 기독교가 서구 지성사에 기여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로 화해와 사랑이 인류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잘못된 사건들을 조사하고 판결하여 현실적인 차원의 최종적인 정의를 세우는 데 방해물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정의를 세워야 하는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부정의를 은폐하는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쉽게 정의의 문제를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다.⁴⁸⁾

리콤프는 이러한 용서의 어려움을 방정식에 비유하면서 설명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변수 값을 측정해서 용서의 방정식을 풀 수 있으나,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에서 이 방정식을 푸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atre Dame Press, 1981), 69.)

47) Paul Ricoeur, *La Mémoire, l'Histoire, l'Oubli*, Paris, Seuil, 2000, trans., Kathleen Blamey and David Pellauer, *Memory, History, Forget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457-506(epilogue).

48) 김혜령, “폴 리콤프의 종말론적 지평 속에 나타난 ‘용서’(par-don) 개념 연구,” 『비교문화연구』 52(2018), 85-86.

는 용서의 주도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잘못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 특히 잘못에 대한 고백 값에 따라서 용서의 값이 달라진다.⁴⁹⁾ 리코르가 자신의 용서론에서 다루는 잘못은 단순하게 개인 간의 크고 작은 잘못에 대한 고백과 보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 죄에 대한 용서의 가능성을 묻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리코르르는 용서의 초월적인 특징에 주목한다. 마치 지혜가, 공기가, 사랑이 그저 있는 것처럼 용서는 그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저 있음’의 차원에서 마치 선물처럼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마치 성령의 선물과도 같다. 원수 사랑의 명령은 성령의 선물로 내려오는 명령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용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과도 같은 것이다.⁵⁰⁾

이에 용서의 완전한 주도권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주도권을 준다고 해서 피해자가 어떤 권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높은 자리에서 가해자의 용서의 요청에 대해서 ‘난 용서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증오를 포기하기로 마음먹는 용서의 능력은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대등한 관계의 수평적인 사랑이 아니라, ‘참회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신의 대속행위로 만들어진 인간에 대한 사랑과 같은 것이다. 참회하는 사람은 피해자가 주는 선물인 용서 앞에 서 있게 된다. 불가능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인류는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행동이다. 이것은 회복된 능력이다. 그 어떤 행위보다도 더 가치 있는 ‘너’를 발견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열게 된다.⁵¹⁾ 이와 같이 리코르르는 용서의 종말론적인 지평을 열었다. 그

49) Ricoeur, *Memory, History, Forgetting*, 459-470.

50) 위의 책, 479-485.

51) 위의 책, 491-493.

것은 ‘할 수 있는 인간’ 즉 윤리적 행동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인간으로서의 미래이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희망은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비록 너무 어렵지만) 용서를 베풀므로 얻어지는 해방에서 오는 가능성이⁵²⁾

2. 사랑과 정의의 실천으로서의 용서⁵³⁾

이제 용서의 기독교사회윤리적 실천의 의미를 리콥르의 작품 『사랑과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자. 리콥르는 『사랑과 정의』에서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관계를 밝히면서 원수 사랑의 윤리적 의미를 설명하였다.⁵⁴⁾ 일반적으로 사랑과 정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전제가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하고, 정의는 공정한 분배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리콥르는 이러한 현상을 ‘넘침의 논리’와 ‘등가의 논리’로 설명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베풀라’는 ‘넘침의 논리’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주라’는 ‘등가의 논리’가 사랑과 정의의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넘침의 논리는 ‘선물경제(l'économie du don)’ 원리의 기초로서 리콥르는 이를 초윤리(supra-éthique)라고 부른다.⁵⁵⁾ 사랑은 윤리적인 행

52) 김혜령, “폴 리콥르의 종말론적 지평 속에 나타난 ‘용서’(par-don) 개념 연구”, 105.

53) 리콥르가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용서의 의미를 설명한 것은 위에서 발표된 『기억, 역사, 망각』이 나오기보다도 훨씬 더 이른 시기이다. 본 논문은 본문의 논리적 의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리콥르의 『사랑과 정의』를 여기에서 다루고자 한다.

54) Paul Ricoeur, *Amour et justice*, 박건택 역, “사랑과 정의”, 『신학지남』, 239 (1994) 232-253. 그리고 최현 역, “사랑과 정의”, 『시민과 세계』, 7(2005), 490-512. 이 글은 이상과 같이 두 번 번역되었다. 이 글은 최현 역을 위주로 박건택 역을 참고하였다. 일찍이 폴 틸리히가 1963년에 발표한 그의 책 *Love, Power and Justice*에서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틸리히는 사랑과 정의는 서로 대척점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서 함께 상승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그의 책에서 깊게 논증하고 있다. (Paul Tillich, *Love, Power and Justice*, 성신형 역 『사랑, 힘 그리고 정의』 (서울: 한들출판사, 2017))

55) 리콥르가 처음 이 글을 썼던 언어가 불어이기 때문에 불어용어를 그대로 가져왔다.

동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윤리는 등가의 논리, 즉 윤리적 황금률을 잘 따져야 한다.

리콰르는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에는 원수 사랑의 계명과 황금률이 동시에 나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리콰르는 이 평지설교에 주목하면서 황금률과 원수 사랑의 계명을 해석한다.⁵⁶⁾ 리콰르는 누가복음 6장 27-38절에 나오는 말씀을 재해석한다.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 중간에 황금률이 등장한다. 전통적으로는 이 황금률을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한다. 넘침의 논리와 등가의 논리가 적용되는 해석의 지평에서 황금률은 등가의 논리로 이해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32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만일 ~ 받고 싶으면’의 말씀과 황금률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윤리적인 넘침의 논리와 비교해서 황금률을 공리주의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황금률보다 넘침의 윤리가 더 중요하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리콰르는 이것은 본문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평지설교의 원수사랑의 계명과 황금률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31절의 황금률과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연결해서 황금률을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치 넘침의 논리가 등가의 논리를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오히려 정의(등가의 논리)와 사랑(넘침의 논리)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계명을 완성한다.⁵⁷⁾ 다시 말해서 리콰르는 황금률은 ‘대접받기위해서 대접해주는’ 그런 공리적인 등가의 논리를 적용

‘l'économie du don’를 박건택은 ‘증여경륜’으로 최현은 ‘은혜의 질서’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김혜령은 이 용어가 계속해서 쓰이면서 ‘선물경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면서 ‘선물경제’로 번역하였다(김혜령, “폴 리콰르의 ‘선물경제(l'économie du don)’ 개념으로 살펴본 사랑과 정의”, 『현대유럽철학연구』, 39(2015), 133-159). 이 글도 ‘선물경제’를 사용하겠다.

56) Paul Ricoeur, *Amour et justice*, 최현 역, “사랑과 정의”, 506-509.

57) 위의 글, 509-511.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황금률도 넘침의 논리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사회 속에서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여러 정의의 법들이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리콤폴트의 이러한 주장은 사랑 명령이 구체적인 현실의 정의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정의의 근간을 이루는 호혜성이 자칫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폐쇄적인 관계를 만들어 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랑 명령으로 구현되는 정의의 기초는 ‘선물경제’를 구현하는 것 이어야 한다. 호혜성이 가지고 있는 조건적인 주고받음의 관계를 넘어서 거저 받았기에 거저 주는 ‘선물경제’의 토대에서 정의를 통한 사랑이 구현 될 수 있다. 결국 정의는 사랑으로 더 구체화되어야만 그 의미를 더욱 잘 실현할 수 있다.⁵⁸⁾ 이와 같이 리콤폴트의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 관계는 용서의 기독교윤리적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 하라는 말씀은 초윤리적인 차원에서 정의를 구현하라는 의미이다. 상호 호혜성을 바탕으로 등가의 논리를 구현하기 위한 황금률의 구현이 아닌, 초윤리적인 넘침의 논리를 실현하기 위한 황금률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용서와 사랑은 정의를 실현하는 윤리적인 실천을 만들 수 있게 된다.

V. 나가는 말

용서는 인류의 역사에서 철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논의해온 가장 오래된 주제 중에 하나이다. 특히 기독교는 악 또는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오랫동안 탐구해 왔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용서의 종교적인 의미에만 치중되어 그 윤리적 의미를 깊게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적인 층위의 용서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58) 김혜령, “폴 리콤폴트의 ‘선물경제’(l'économie du don) 개념으로 살펴본 사랑과 정의’, 152-154.

연구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용서(사랑)는 하나님의 의(정의)를 구현함으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윤리적인 과정임을 논증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용서의 의미를 탐구하였다. 우선, 본 논문은 구약성서의 전통에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죄의 의미를 파악하고,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의의 구현에 있음을 논증하면서 용서의 사회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율법의 전통이 예언자 전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는 신약성서의 전통에서 용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 시대의 복음과 용서의 관계, 그리고 초기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한 용서의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논증하였다. 이러한 용서의 성서적인 전통을 통해서 용서는 사랑과 정의의 실현을 통한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끝으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기독교사회윤리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용서의 윤리는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관계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용서의 윤리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함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임을 논증하였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용서와 사랑, 정의와 화해가 바탕이 되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용서를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현실에서의 정의의 구현보다는 내세적인 관점에만 치중하거나, 용서 대신에 법의 집행만을 너무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논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것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에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깨닫고 용서의 윤리를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 - 용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서울: 동녘, 2017.
- 김영남, “신약성경에 나타난 ‘회개(참회)와 용서.’”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55 (2006), 44-81.
- 김혜령. “폴 리콥르의 ‘선물경제(l'économie du don)’ 개념으로 살펴본 사랑과 정의.” 『현대유립철학연구』, 39(2015), 133-159.
- _____. “폴 리콥르의 종말론적 지평 속에 나타난 ‘용서’(par-don) 개념 연구,” 『비교문화연구』 52(2018), 79-110.
- 김희권. “예언자들의 회복적 정의와 사회적 치유 사상에 나타난 용서와 화해.” 전우택 외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서울: 명인문화사, 2018, 109-133.
- 박해령. “구약성서의 죄개념과 사유(赦宥)의 하나님.” 『신학논단』, 57(2009), 7-25.
- 성신형. “칭의에서 정의로: 이신칭의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장신논단』, 50(1) (2018), 223-245.
- 송경아. “구속사를 통한 성경적인 용서의 발전과 그 용서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복음과 실천신학』, 51(2019), 130-165.
- 이샤야. “구약의 사회적 약자와 법전의 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18(2009), 259-288.
- 이종원. “용서의 윤리 - 호모 울토르(Homo Ultor)에서 호모 이그노센스(Homo Ignocense)로.” 『신학과 사회』, 28(2) (2014), 9-38.
- 조용훈. “산상설교의 윤리적 특징에 대한 연구.” 『장신논단』, 48(4) (2016), 229-252.
- 한기채. 『성서이야기윤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Bash, Anthony. *Forgiveness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_____. “Forgiveness: A Re-appraisal.” *Studies in Christian Ethics*. 24(2) (2011), 133-146.
- Hauerwas, Stanley.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atre Dame Press, 1981.

- Hays, Richard, B.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유승원 옮김. 『신약의 윤리적 비전』. 서울: IVP, 2002.
- Levinas, Emmanuel. *Totalité et infini*. trans., Alphonso Lingis, *Totality and Infinity* Pittsburgh: Duquesne University Press, 1991.
- Ricoeur, Paul. *Amour et justice*. 박건택 역, “사랑과 정의”, 『신학지남』, 239 (1994) 232-253. 그리고 최현 역, “사랑과 정의”, 『시민과 세계』, 7(2005), 490-512.
- _____. *La Mémoire, l'Histoire, l'Oubli*, Paris, Seuil, 2000, trans., Kathleen Blamey and David Pellauer, *Memory, History, Forgetti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 Torrance, Alan J. “Forgiveness and Christian Character: Reconciliation, Exemplarism and the Shape of Moral Theolog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30(3) (2017), 292-313.
- Verhey, Allen. *The Great Reversal - Ethics and the New Testament*. 김경진 옮김 『신약 성경 윤리』. 서울: 솔로몬, 2015.
- Wright, Christopher J.H.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김재영 옮김.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IVP, 2006.
- Tillich, Paul. *Love, Power and Justice*, 성신형 역 『사랑, 정의 그리고 힘』. 서울: 한들출판사, 2017.

논문투고일: 2020년 02월 24일

심사개시일: 2020년 03월 12일

게재확정일: 2020년 04월 18일

• 국 문 초 록 •

본 연구는 기독교 윤리적 의미의 용서를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신구약성서의 전통에서 드러난 죄와 용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용서의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용서의 기독교 윤리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세 가지 논점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구약성서 전통에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율법과 예언자 전통을 통해서 드러난 용서의 의미를 파악하면서, 용서의 사회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신약성서의 전통에서 용서의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 예수 시대의 복음과 용서의 관계, 그리고 초기 교회 바울을 통해서 용서의 사회적 의미가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다. 셋째, 성서적 전통의 용서의 의미에 대한 기독교윤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폴 리콰르의 사랑과 정의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용서의 윤리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임을 논증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용서는 단순히 내세적이고 종교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적인 차원의 용서는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논증하고 있다.

주제어: 용서, 정의, 율법, 산상수훈(평지설교), 폴 리콰르, 기독교윤리
